

## I. 서론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모두 네 번의 재판 받는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재판으로 살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다.

## II. 본문

1. 유대인들은 2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바울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다.(1-3절)

이는 영적인 문제, 즉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배후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이 있다. 구약성경의 역사는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가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에도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2. 바울은 자신의 무죄는 주장했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다.(8, 11절)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를 상대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에게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았다.(모세, 다윗, 바울 등....)

3.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품을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첫째,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받는 은혜 때문이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기도했고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다. 가이사랴에서의 2년 동안의 감옥생활은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시간이었다.

\* 김진홍 목사님 예화, 모세와 다윗의 경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장소나 환경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났다면 바울은 당연히 석방을 요청했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재판을 받겠다고 자청한다. 바울의 마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대하여 섭섭해 하고 미워할 겨를이 없었다.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를 쉽게 미워한다면 비전, 즉 목표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

## III. 결론

아그립왕과 바울의 극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라.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는 화려한 왕복을 입은 왕이지만 세상을 권력과 쾌락에 취하여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외모는 초라한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 암송

### 이번 주 외울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20-21)

## 통독

### 이번 주 통독 말씀

11/9(월)	11/10(화)	11/11(수)	11/12(목)	11/13(금)	11/14(토)
길 1-4장	갈5-엡2장	엡 3-6장	빌 1-4장	골 1-4장	살전 1-5장

## QT

### 이번 주 QT 말씀

11/9(월)	11/10(화)	11/11(수)	11/12(목)	11/13(금)	11/14(토)	11/15(주일)
살전 5:19-28	살후 1:1-12	살후 2:1-12	살후 2:13-3:5	살후 3:6-18	단 1:1-9	단 1:10-21

## 나눔

###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2. 목사님은 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극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은 복음 전진을 막는 사탄의 꾀계가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그들에 대하여 어떠한 원망이나 미움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4. 목사님께서서는 설교의 결론에서 아그립바 왕과 바울을 비교해서 나 자신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그립바 왕과 바울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고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